‘명진 스님, 봉은사 퇴출’ JTBC보도 조계종 반박

“퇴출 아닌 임기만료” 강조

JTBC가 ‘민간인 사찰’ 관련 보도 과정서 명진 스님에 대해 봉은사 주지서 퇴출됐다고 표현함에 따라 조계종이 이를 정정 요청했다.

JTBC는 8월 30일 뉴스룸에서 “명진 스님은 2011년 봉은사 법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얼마 뒤 봉은사에 명진 스님이 나가달라는 요청이 들어가 결국 쫓겨났다”면서 “당시 명진 스님은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과 이상득 前의원, 이명박 대통령의 총체적 합의 속에 이뤄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JTBC의 보도 직후 조계종은 즉각 논평을 내고 “JTBC가 명진 스님의 입장을 인용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보도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며, 국정원 업무와 관련해 종단과의 협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이어 “명진 스님은 봉은사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종헌종법에 의거해 주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만료하고 수행자로 돌아갔다. 당시 논란은 명진 스님이 재임을 하고자 해 벌어진 논란”이라며 “JTBC는 관련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과 정정 보도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한글의례 ‘운곡’ 시범 녹음

인묵 스님 등 6개월간 시연

조계종이 한글 의례의 음률인 ‘운곡’ 정비에 본격 나섰다. 조계종 의례위원회 운곡실행팀은 8월 30일 양재동 이음사운드 스튜디오에서 상단헌공 등 헌공의례와 ‘붓다로살자’ 수록 운곡 음원을 시범 녹음했다.

조계종은 2011년부터 각종 의례와 의식을 우리말로 표준화해 우리말 의례 보급에 나선 바 있다. 최근까지 칠청례와 반야심경, 천수경, 삼귀의, 사홍서원 등이 한글로 제작돼 전국사찰에 보급된 상태다.

이번 운곡은 한글의례에 대한 정확한 음률을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운곡실행팀은 조계종 포교원과 함께 시범 녹음된 음원을 통해 6개월 간 대중처소 시연하며 문장의 매끄러움과 실용적인 발음 등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녹음에는 의례위원장 인묵 스님을 비롯해 화암, 법안 스님 등이 참여했다.

노덕현 기자

공명선거 위한 감시조직 대대적 출범

조계종 중선위, 교구선거위원 · 호법국장 등과 ‘공명정대 선거 실현 선포’… 담화문도 발표

전국에서 선거위반 감시활동
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 대처
부정선거 SNS신고센터 운영
“왜곡된 선거문화 바로잡자”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정선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이 발족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훈)는 8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공명정대한 총무원장 선거 실현 선포식’을 개최하고, 청렴한 선거를 위한 제반활동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을 비롯해 각 교구선거관리위원과 교구별로 추천받은 공명선거위원, 본사 호법국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중앙선관위원장 종훈 스님은 “종단은 그동안 금권, 비방, 폭로 등으로 왜곡된 선거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는 잘못된 선거풍토를 단호히 근절하고, 승가화합과 모범적인 선거문화를 정립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모든 종도는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공명정대한 선거 실현을 위해 감시활동에 대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선거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호법부장 세영 스님도 “운전할 때 운전법규를 숙지해야 안전하게 할 수 있듯이 선거 관련 법규를 숙지해 선거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어 종훈 스님은 공명선거위원으로 위촉된 스님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17교구 금산사 위원 구담 스님은 대표로 위촉장을 받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사전 선거운동 및 부정선거 감시활동에 진력해 공명선거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선언문을 낭독했다.



‘공명정대한 총무원장 선거 실현 선포식’이 끝난 뒤 선거감시활동에 나서는 위원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구호를 외치며 의지를 다졌다.

중앙선관위는 또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총무원장 선거일정을 비롯해 선거업무 ·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이와 더불어 부정선거 SNS신고센터(카카오톡) 운영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위원들은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스마트폰을 이용해 선거법 위반 현장 및 위반자, 증거물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채증한다. 이를 선관위 SNS신고센터에 보고하고, 중앙선관위원장 지휘를 받아 이후 상황을 대처한다.

선포식에서는 중앙선관위원장 종훈 스님과 호법부장 세영 스님이 총무원장 선거에 즈음한 공동담화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두 스님은 담화문서 “종단개혁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동안 우리의 선거제도는 종도들의 참종권을 보다 확대하고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돼 왔고, 승가의 공의를 바탕으로 종단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원력을 계승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스님들이 선거철만 되면 지지자를 확보하기 위해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를 즈음해 자신의 주장을 집단의 위력을 통해 폭력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불법 집회의 개최행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선거과정을 불공정하게 만드는 불법선거운동의 대표적인 사례인 동시에 종헌종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승가의 가장 큰 미덕인 화합을 깨는 행위이므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각 교구와 권역별로 금권선거를 비롯한 불법선거운동 감시를 강화하고, 종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속한 징계심판청구 등 제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동국대 의료원, 역대 最高 성과 달성

전년 대비 8% 성장… 개혁 노력에 성과

비구니 스님 전용 병실 설치
승가 위한 의료서비스 구상도
자광 스님, 의료원 격려 방문
임직원에게 피자 · 햄버거 보시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은 일산병원을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피자 370판과 금일봉을 보시했다.

“개원 뒤 12년 동안 걱정만 끼쳐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걱정이 아니라 동국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의료원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사말을 읽는 이진호 동국대 의료원장의 목소리가 울먹이며 떨렸다. 최근 동국대 의료원 산하 병원들이 전년 동월 대비 8% 이상의 성장을 거둔 것을 축하하기 위해 이사장 자광 스님의 8월 29일 일산 병원 격려 방문 자리에서였다.

그간 동국대 의료원 산하 병원들은 경영상 고전을 면치 못했다. 경주병원의 경우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된 경영적자로 인해 한때 유동성 위기까지 겪었다. 이후 경영진단과 인력 조정, 진료환경 개선 프로젝트 등이 이뤄졌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하지만 새로 취임한 이사장 자광 스님은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하며 사기 진작을 도모했고, 병원장 진료시간을 유지토록 했다. 이를 통해 경주병원은 지난 3월 개원 이래 최고 진료실적을 달성했다.

분당한방병원은 행정사무실을 지하공간으로 이동하고 진료실을 전면에 재배치함으로써 공간의 효율화를 시도했고, 이는 곧 병원 수익 개선으로 이어졌다. 일산병원은 환자와의 소통을 위한 ‘공감 · 참여’ 캠페인 등 고객만족사업과 인사단행 등이 이뤄졌고 이를 통해 지난 7월 최고 월 진료실적을 달성했다.

동국대 의료원 자체의 변화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동국대 의료원은 5월 1일 ‘의료원 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은 의료원 산하 기관과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불교와의 접점을 늘리고 있는 점도 변화의 모습이다. 동국대 일산병원의 경우 최근 5인실 병실 2곳을 비구니 스님 전용실로 배치했다. 병원 관계자는 “공식적으로는 1달 전부터 운영되고 있다. 평균 3~5명의 비구니 스님께서 병실을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동국대 의료원은 조계종 승려복지회와 전국비구니회와 협약을 맺고, 사전 건강검진 등 승가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해 노력키로 결의했다. 현재 어려운 스님들을 위한 순회 검진 사업 등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 자광 스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산하병원 임직원들이 투철한 책임감을 갖고 최고실적을 달성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최고의 서비스로 최상의 진료를 하는 병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광 스님은 의료원 산하 병원 임직원들에게 4월부터 격려방문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4월 5일에는 경주병원에 피자 198판, 햄버거세트 38개를 전달했으며, 7월 7일 분당한방병원(피자 44판)에서 피자 파티를 열었다. 8월 29일에는 일산병원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피자 370판과 금일봉을 보시했다.

일산=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도반HC, 행사기획대행 자회사 갖춰

(주)스태프미래 8월 30일 조인… “사찰행사 보완”

불교 문화행사 정체성 정립
사회일반 현장 진출 계획도


도반HC와 스태프미래의 조인식. 왼쪽부터 김용환 도반HC 사장, 총무원 사업부장 각운 스님, 이상종 스태프미래 대표.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주)도반HC가 앞으로 행사기획대행까지 활동영역을 확장한다.

도반HC(사장 김용환)는 종단차원의 기획행사 추진과 행사대행의 질적 향상을 위해 8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주)스태프미래(대표 이상종)의 자회사 등록을 마쳤다. 도반HC는 7월 19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회사로 행사기획대행사를 설치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여 년간 연등축제를 비롯해 월정사 · 청량사 산사음악회 등 각종 불교계 행사대행을 맡아온 스태프미래와 협약을 맺었다. 도반HC는 스태프미래 주권 일정부분을 인수하고, 자회사로 편재했다.

이날 양사 간 조인식에서 조계종 총무원 사업부장 각운 스님은 “지금의 산사음악회가 전국적으로 퍼지는 데 스태프미래의 역할이 컸다. 앞으로 지역사찰 축제 기획에 종단이 도움을 주고, 불자연예인 등을 통한 포교 활성화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상종 스태프미래 대표는 “크고 작은 행사를 참여하며 종단과 20년 동안 인연을 다져왔다. 하지만 불교계에 문화적 소프트웨어가 많은데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을 느꼈다”며 “이번 기회가 불교문화를 구축해나가는 일이라 생각하고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도반HC에 따르면 스태프미래는 향후 불교계 행사기획대행 분야에서 종단 회사로서의 지위를 갖고, 사찰과 지역 문화행사 등을 보완하고 지원한다. 또 불교계 문화행사 정체성 정립해 사회일반 행사기획 현장에도 진출, 불교계 문화콘텐츠를 알리고 자긍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윤호섭 기자

公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告

알려드립니다

귀의삼보하옵고
입추 지절에 종도 및 제방의 사부대중 여러분들의 가내에 건승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다름아니오라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 선교종 6세 종정 지자, 공자 지공 엄외출 대종사께서 숙환으로 지난 7월 3일 열반에 드셨습니다만 종도 여러분들과 제방의 사부대중에게 알리지 못한점은 생전에 종정 예하님께서 가족에게 “내가 입적하거든 종단의 종도는 물론 일붕문도를 비롯 제방의 사부대중에게 절대로 알리지마라.”고 간곡히 부탁하시며,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루라는 유언을 남기셨기에 부득히 알리지않고, 가족장으로 모신 것을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종도 여러분들은 물론 사부대중 여러분들께서는 변함없는 애종심으로 화합단결하여, 더욱 더 종단발전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2061(2017)년 8월 29일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경 원 총무직원 일동 합장

■ 총 무 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6길 76-9 일붕선원 1층 전화 : (02) 991 - 8175, 8904 www.ilbung.org
■ 총무원장 주석사찰 호불사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룡로 80 (옥련동) 전화 : (032) 834 - 8904, 833 - 8175